

방탄소년단, 연일 신기록 · 이례적 행보 '꽃길' 펼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끝없는 꽃길을 펼쳐가고 있다. 연일 신기록과 이례적인 행보로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는 것. 방탄소년단은 오는 22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뉴욕 유엔본부 신타롱 차이사회 회의장에서 열리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Generation unlimited)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UN연설부터 美방송출연 · 5억뷰까지

제73차 유엔총회가 이번 주 개막하면서 각국 정상들이 유엔본부에 모이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초청된 것이다. 이 행사는 젊은 세대를 위한 투자와 기회 확대를 취지로 해 마련된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방탄소년단은 3분기간 연설을 펼친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오는 28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위치한 ABC 채널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라이브 무대를 선사한다. '굿모닝 아메리카'는 미국 ABC 채널을 대표하는 아침 방송으로, 뉴스를 비롯해 시사, 교양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세계적인 스타들도 출연해 인터뷰와 공연을 선보이는 등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이어 '굿모닝 아메리카'까지 출연을 확정하며 연이은 글로벌 행보로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방탄소년단은 'DNA' 뮤직비디오가 한국 그룹 최초로 조회수 5억뷰를 돌파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9월 18일 발표한 LOVE YOURSELF 承 'Her'의 타이틀곡 'DNA' 뮤직비디오는 20일 오전 1시 22분경 유튜브 조회수 5억건을 넘었다.

이날 한국 그룹 사상 최초이자 최단 기간 뮤직비디오 조회수 5억뷰 돌파 기록이다. 'DNA' 뮤직비디오는 공개 후 24일 만에 1억뷰, 3개월 만에 2억뷰, 5개월 만에 3억뷰, 9개월 만에 4억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은 4억뷰를 넘은 '불타오르네(FIRE)' 뮤직비디오와 '쩨어', '피 땀 눈물', 'MIC Drop' 리믹스, 'FAKE LOVE' 등 4편의 3억뷰 돌파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또, '낫 투데이(Not Today)', 'Save ME', '상남자' 등 총 3편의 뮤직비디오가 2억뷰를 돌파했으며, '봄날', 'Danger', 'I NEED U', '호르몬 전쟁', 'IDOL' 등 총 5편의 뮤직비디오가 1억뷰를 넘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5~6일, 8~9일 미국 LA 스테이플스센터를 시작으로 LOVE YOURSELF '월드 투어'에 나섰다. 다음달 6일에는 뉴욕 시티필드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의 홈구장인 시티필드는 폴 매카트니, 레이디 가가, 비욘세, 제이지 등이 공연을 꾸민 무대다. 한국 가수가 이곳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배반의 장미, 의외의 조합이 빛어낼 웃음



영화 '배반의 장미'가 첫 코미디 도전 순간부터 코믹 연기의 대가 김인권, 정상훈까지, 의외의 조합이 빛어낼 확실한 웃음을 예고했다. '배반의 장미'(감독 박진영·제작 태원엔터테인먼트) 제작보고회가 2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영 감독과 배우 손담비, 김인권, 정상훈, 김성철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배반의 장미'는 슬픈 인생사를 뒤로 하고 떠날 결심을 했지만 아직 하고픈 것도, 미련도 많은 세 남자와 죽기엔 너무 아까운 한 여자의 특별한 하루를 그린 코미디 영화다. 이번 영화는 사연을 품인 네 사람이 만나 하룻밤 안에 벌어지는 독특한 인연을 담고 있다. 김인권은 이번 영화의 신선한 설정에 만족을 표했다. 그는 "시나리오를 읽고, 한국의 '행요미'라는 생각을 했다. 하룻밤 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그것들이 아지기가하게 잘 엮인 것 같아 좋았다"고 했다. 정상훈 역시 "영화가 좀 독특하기도 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한 네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 벌어지는 일이라는 설정 자체가 재밌었다"고 말해 기대를 더했다.

'배반의 장미'는 이렇듯 인물들이 가진 심각한 사연을 유쾌한 톤으로 풀어내며 웃음을 자아낼 예정이다. 박진영 감독은 영화에 대해 "참 웃기는 영화다. 재미있는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며 웃음을 자신했다. 특히 죽음을 결심하고 모인 세 남자로 등장하는 김인권, 정상훈, 김성철의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코믹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먼저 병남역을 맡은 김인권은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의 무게 탓에 생을 포기하는 가장"이라고 캐릭터를 설명하며 "모든 인물들이 각자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각 캐릭터 안에 숨겨진 의미를 설명했다. 정상훈과 김성철은 김인권의 코믹 연기를 극찬해 더욱 기대를 높였다. 정상훈은 "영화계의 진정된 코미디 대가"라고 평가하며 "조용하게 있다가 활영에 들어가면 막 웃기더라. 정말 연기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상훈은 입담은 뛰어난데 글만 쓰면 시나리오 작가 심신역을 맡았다. 그는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독약을 앞에 둔 그 시간이 오히려 행복했을 것 같다. 심신역을 통해 인생에 대한 가치를 찾아 해냈다"고 말해 활약을 기대했다. 이번 영화를 통해 스크린 첫 주연을 맡은 손담비가 세 남자와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미지움을 받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손담비는 "코미디 장르를 어렵게 생각했지만, 김인권과 정상훈 덕분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많은 걸 배웠다"고 선배 배우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손담비부터 김인권, 정상훈, 김성철까지, 의외의 조합이 만들어낸 웃음이 담긴 '배반의 장미'가 관객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가 모인다. 10월 18일 개봉.

'알쓸신잡3', 센터 김영하...교과서급 잡학이 온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이하 '알쓸신잡')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연출을 맡은 내영석 PD와 양정우 PD 그리고 유희열, 유시민, 김영하, 김진애, 김상욱 등이 참석했다. '알쓸신잡'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잡학 박사들이 지식을 꺼내 수다를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2017년 6월 시즌1, 2017년 10월 시즌2가 방송됐다. 유희열, 유시민이 전 시즌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시즌 1에 출연했던 김영하 작가가 컴백하게 됐으며 김진애, 김상욱 박사가 새롭게 합류해 다양한 지식을 방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즌 최초로 그리스의 아테네, 이탈리아의 피렌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등 해외를 다녀와 여러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시청자들에게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즌 처음으로 해외를 다녀온 만큼 과연 어떤 지식, 잡학이 펼쳐질

지가 관심사였다. 제작진과 출연자들은 시청자들에게 전할 재미와 잡학(지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먼저 유희열은 이번 여행이 힘들었다고 하면서도 단순 여행으로 다녀왔던 유럽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됐다고 했다. 특유의 투덜거림 속에 역사, 건축, 종교 등 여러 분야의 지식 습득은 제대로 했다는 뜻. 그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는 유럽의 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 많이 지켜봐 달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유시민 작가는 유럽을 다녀온 배경에 대해 "제가 유럽을 가지고 해서 내PD가 맡았다. 좀 힘들 거라고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하더라"면서 "한군데만 가지고 했는데, 아깝아급 많이 달라지더라 9박 10일을 다녀왔

다"고 했다. 이를 두고 내PD는 왕복 항공권을 쓰는 만큼 한군데만 다녀 오기 아쉬워, 분량을 제대로 뽑고 오자는 마음으로 세 도시를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국내 도시들은 우리가 기본 정보들을 시청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유럽은 그렇지 않아서, 걱정도 많았는데 첫 편 나오면 망할지 감이 오겠쎬. 긴장된 마음이 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시즌에 이어 다시 돌아온 김영하 작가의 활약을 예고 했다. 그는 "모든 흐름을 좌우하고, 이야기 색깔과 수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제가 센터에서 물러나야 할 때"라고 김영하를 호렷했다. 이에 김영하 작가는 "위험 부담을 나누는 것"이라고 반박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이와 함께 모든 시즌에 출연한 것을 두고 "내PD가 하지도 하면, 거절하기 힘들다. 측은지심이 많이 달라지더라"고 말했다.

고 내PD는 다음에도 찾아와줬다고 했다. 유시민으로부터 '센터'라는 칭찬을 받은 김영하 작가는 "시즌보다 훨씬 재미있었다"면서 "편집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촬영은 재미있게 해서 돌아갈 때 며칠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알쓸신잡'에서 유럽을 다녀온 부분에 대해선 "세계사 민주주의가 아테네에서 시작됐고, 현재 우리 문재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내 도시 이야기보다 또 다른 볼거리와 들을 거리가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이밖에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김진애 교수, 김상욱 교수는 재치있는 입담을 선보이면서 '알쓸신잡'의 관련 포인트를 이목을 끌기도 했다. 공동 연출을 맡은 내영석PD는 "세계사 교과서로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밝히며 '알쓸신잡'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내PD는 "수확해 간 다녀온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편집도 예고해 분방송에 거는 기대감을 높였다.

슈퍼주니어, 10월 8일 라틴팝으로 컴백...려욱 합류



'글로벌 한류킹' 슈퍼주니어가 8일 슈퍼주니어-D&E에 이어, 하반기 SUPER JUNIOR CALENDAR,

2018'의 배틀을 이어 받는다. 슈퍼주니어는 오는 10월 8일 총 다섯 트랙이 수록된 스페셜 미니 앨범 'One More Time' (원 모어 타임)을 발매하고, 9월 중 세 앨범의 선공개 곡 뮤직비디오와 음원을 기습 공개할 예정이어서 글로벌 음악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멤버 려욱이 제대 후 처음으로 합류해 의미를 더한 'One More Time'은 모든 트랙을 트랜디한 '슈주 포' 라틴 팝으로 구성, 지난 4월 12일 발표한 정규 8집 리플레이 앨범 'REPLAY' (리플레이) 타

이들 곡 'Lo Siento (Feat. Leslie Grace)'에 이어 슈퍼주니어만이 소화할 수 있는 색다른 라틴 콘셉트의 곡들로 알차게 채워, 더욱 높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슈퍼주니어의 정규 8집 리플레이 앨범 'REPLAY'는 발매와 동시에 전 세계 29개 지역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1위에 오르고, 타이틀 곡 'Lo Siento (Feat. Leslie Grace)'는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라틴 디지털 송 차트(Billboard's Latin Digital Song Sales chart) 13위에 진입하는 등 뜨거운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오늘의 순세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음력 8월 12일)



▶**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품은 좋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손해뿐이다. 남의 사정을 봐주다가 나는 울상이 된다. 인정에 끌리지 말고, 내 일에 열중하라. 나, 모, 천, 성씨 사랑하는 사람과 오호에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



▶**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좋으나 남의 것을 모방한다면 삼가는 것이 옳다. 처음에는 포부가 크지만, 결국 뒤쳐진다. 확고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때 서서히 운이 열린다. 나, 천, 성씨 급히 서두르다 보면 허점이 보인다.



▶ **고양이** 생활 리듬이 깨지면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어려울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라. 생각은 크지만, 행함은 작아진다. 도피하고 싶겠으나 지혜를 모아 용기 있게 전진하라. 3, 5, 9월생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어서 일어서라.



▶ **토끼** 화술이 능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높으나 끈기가 없어 끝맺음이 약한 것이 단점이다. 단점이 더 있다면 심증을 잘 내는 것이다. 이 또한 고치라. 3, 8, 10월생 자기주장만 내세워 고집부리는 것은 삼가야 한다.



▶ **호랑이** 친구와 동업하거나 친구에게 보증을 서주지 말라. 처음에는 우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혼자 채무를 짚어지는 것도 모자라 친구마저 잃는다. 유념해야 한다. 나, 천, 성씨 사업에도 지치고, 사랑에도 지친 마음을 잡을 길이 없구나.



▶ **뱀** 자신감이 넘치지만, 예기치 않는 일이 생긴다. 금전이나 이성 문제로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어떠한 극한 상황에도 침착하게 처신하라. 잘못 시작한 애정 문제가 이제 짐만 된다. 혼자 살아가기 힘들 정도다. 원숭이, 돼지, 범띠 등이 힘이 돼 준다.



▶ **말**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고, 남이 하는 일은 부정하다고 보는 것은 존경받지 못할 행위다. '공 심은 데 콩 나고 팔 심은 데 팥 난다'고 했다. 내가 행한 대로 얻는 법이니 남을 원망하지 말고 화목함을 유지하라.



▶ **양** 사랑하는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고 언행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감정을 억제하고, 여유를 가지라.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으나 결국 혼자 살아가야 하는 신세다. 한층 더 뒤러. 나, 천, 성씨 소화불량에 주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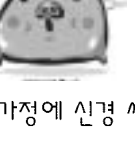
▶ **원숭이** 평온한 상태에서도 때로는 만족하지 못해 짜증스럽고 불만에 가득 차 있으니 관태로운 시기다. 혼자 울고만 살 수는 없는 법이다. 팥자를 한탄할 때 누워 침 뱉기에 불과하다.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 1, 5, 9월생 이혼 수가 있다.



▶ **닭** 무엇인가 멋지게 해보고 싶지만, 마음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조급하고 항상 초조한 상태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불행하게도 뒤쳐졌다는 생각에 답답하기만 하구나. 2, 6, 10월생 여유를 가지라.



▶ **돼지** 신중을 기해 현 상태를 잘 유지하라. 불황을 겪고 있어 마음이 흔들린다. 아직은 반동할 시기가 아니다. 홀로살기를 배워 마음도, 육체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할 때다. 쥐, 말, 토끼띠는 당신 것만 가져만 간다.



▶ **돼지** 뜻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초조하다. 도를 닦는 마음으로 인내하라. 순리대로 행할 때 길이 있다. 내 노력과 결단으로 호기를 맞출 수 있으니 찬스를 포착하라. 3, 9, 10월생 가장엔 신경 써 자녀 건강도 체크해 보라.